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발표자 ○○○입니다. 최근 케이팝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까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호랑이와 까치는 조선 시대 민화 호작도에서 이어져 온 전통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호작도는 호랑이와 까치를 한 화면에 그린 그림인데요, 오늘은 호작도 속에서 호랑이와 까치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그림, ㉠ 여기 호작도를 볼까요? 호작도는 보통 나무 아래에 호랑이를, 위에는 까치를 배치해 당대 사람들의 인식과 바람을 담아냈습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호랑이로 인한 화를 뜻하는 호환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위협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힘이 액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결과 호랑이를 나쁜 기운을 막아 주는 수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료의 호랑이를 가리키며) ㉡ 그런데 이 그림 속 호랑이, 수호자처럼 보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어딘지 의연하고 듩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며) 눈은 이렇게 과장되게 크고, 발도 몽푹하지요. ㉢ 이는 호랑이를 익살스럽게 그림으로써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심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료의 까치를 가리키며)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까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까치에 대한 속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그렇죠.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작도에 길조인 까치를 그려 넣은 것은 복을 기원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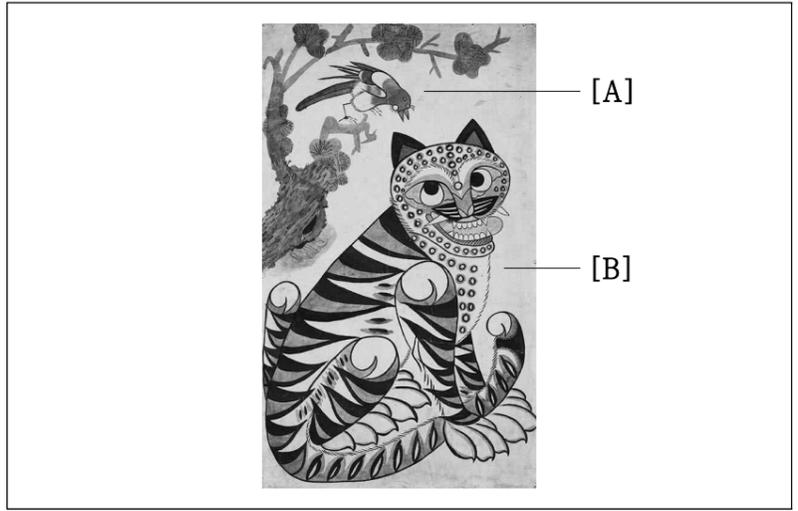
㉣ 한편 호작도를 민화 특유의 풍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화는 민중에게 익숙한 소재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호랑이와 까치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중왕이라 불릴 만큼 위엄 있는 호랑이는 흔히 지배층을 상징합니다. (자료의 호랑이를 가리키며) 민중은 절대적 권위자를 이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려 ㉤ 그가 지닌 위엄을 무너뜨리고, 이를 통해 통쾌함을 느꼈던 것이죠. (자료의 까치를 가리키며) 이렇게 나무 위에서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지저귀는 까치는 지배층을 조롱하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호랑이는 수호자이자 풍자의 대상인 지배층으로, 까치는 길조이자 풍자의 주체인 민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는 오늘날 날까지 재창조되어 일상 속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매체에서 캐릭터로만 보던 호랑이와 까치를 직접 그림으로 마주해 보고 싶다면 박물관에 한번 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1. 발표자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중심 소재의 뜻을 풀이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는다.
- ② 청중이 던진 질문에 답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 ③ 관용적 표현을 통해 설명 대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 ④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인다.
- ⑤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해 보기를 권하며 발표를 마무리한다.

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발표자가 [A], [B]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호랑이보다 높은 곳에 배치하여 복을 기원하는 민중의 소망이 절실했음을 드러냈다.
- ② [A]: 호랑이를 향해 지저귀는 모습은 지배층의 권위에 따르고자 하는 민중의 모습을 나타냈다.
- ③ [B]: 눈을 과장되게 크게 그리고 몽푹한 발을 부각함으로써 절대적 권위자의 위엄을 드러냈다.
- ④ [B]: 외양을 익살스럽게 그려 친근한 존재로 곁에 두고 싶어했던 민중의 심리를 반영했다.
- ⑤ [B]: 민화 특유의 특징을 반영하여 산중왕으로서 의연하고 듩직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3. <보기>는 발표 전에 학생이 참고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담화가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응집성이란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나 문장들이 내용상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응집성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 앞의 내용을 다른 말로 대신하여 반복을 피하는 대용 표현,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표현 등이 있다.

- ① ㉠: 지시 표현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호작도를 가리키며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군.
- ② ㉡: 접속 표현으로, 앞에서 말한 호랑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지어 다른 내용을 언급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③ ㉢: 대용 표현으로, 앞에서 제시한 호랑이의 외형적 특징을 대신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군.
- ④ ㉣: 접속 표현으로, 앞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호작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군.
- ⑤ ㉤: 대용 표현으로, 앞에서 제시한 절대적 권위자를 대신하여 반복을 피하고 있군.

7. <보기>는 중세 국어의 모음 표기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중세 국어에서 모음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다. 모음을 표기할 때에는 기본자인 ‘·, ㅡ, ㅣ’, 초출자인 ‘ㅛ, ㅜ, ㅠ, ㅡ’, 재출자인 ‘ㅝ, ㅞ, ㅟ, ㅠ’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자와 초출자는 단모음을, 재출자는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표기였지요.

학생 : 그러면 선생님, 모음 ‘ㅞ’는 어떻게 표기한 것인가요?

선생님 : 좋은 질문이에요. ‘ㅞ’는 초출자 ‘ㅜ’와 기본자 ‘ㅣ’를 합한 표기입니다. 그리고 ‘ㅠ’는 초출자 ‘ㅛ’와 ‘ㅜ’를 합한 표기입니다. ‘ㅞ’처럼 초출자를 ‘ㅣ’와 합하거나, ‘ㅠ’처럼 초출자끼리 합한 것들은 모두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표기였어요. 이렇게 글자를 합해 쓰면, 중세 국어의 다양한 모음들을 표기할 수 있었습시다.

학생 : 선생님, 그러면 [A] 을 나타내는 표기였군요.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는 기본자로,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
- ② ‘ㅜ’는 초출자로, 중세 국어에서 단모음
- ③ ‘ㅝ’는 재출자로,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
- ④ ‘ㅞ’는 초출자끼리 합한 표기로,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
- ⑤ ‘ㅠ’는 초출자를 ‘ㅣ’와 합한 표기로, 중세 국어에서 이중 모음

8. <보기>의 ㉠, ㉡에 모두 해당하는 예를 <자료>의 ㉠~㉣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문장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정 표현은 의미에 따라 의지 부정, 능력 부정, ㉠ 단순 부정으로 나뉜다. 주체의 의지를 부정하는 의지 부정과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은 부정 부사 ‘안’이나 보조 용언 구성 ‘-지 않다(아니하다)’로 실현된다. 주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능력 부정은 부정 부사 ‘못’이나 보조 용언 구성 ‘-지 못하다’로 실현된다.

부정 표현이 사용된 부정문은 형식에 따라 짧은 부정문과 ㉡ 긴 부정문으로 나뉜다.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를, 긴 부정문은 보조 용언 구성을 사용하는 부정문이다.

< 자 료 >

학생 1 : 너 숙제 다 했어?

학생 2 : 아니, 혼자서는 하기 싫어서 ㉠ 아직 시작 안 했어.

학생 1 : 난 어려워서 ㉡ 다 끝내지 못했는데. 같이 할래?

학생 2 :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잖아. ㉢ 내 생각에는 오늘 안에 다 못 해.

학생 1 : 철수와 영희도 숙제를 함께 하니까 ㉣ 오래 걸리지 않았대. 우리 둘도 힘을 합치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학생 2 : 좋아, ㉤ 포기하지 않겠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관형사, 명사, 용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데, 명사는 조사 ‘의’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하며, 용언은 어간에 ‘-는’과 같은 어미를 결합하여 쓰인다. 이때 한 단어가 관형어로 쓰이기도 하고, 두 단어가 함께 하나의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 ㉠. 첫 만남은 항상 설레다.
- ㉡. 동생의 성격은 참 좋다.
- ㉢. 흐르는 물에 손을 씻다.
- ㉣. 험 겨울 이불을 버리다.
- ㉤. 옆 반 친구와 인사하다.

- ① ㉠ : 관형사 ‘첫’은 체언 ‘만남’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② ㉡ : 명사 ‘동생’은 조사 ‘의’와 결합하여, 체언 ‘성격’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③ ㉢ : 용언 ‘흐르는’은 어간에 어미 ‘-는’이 결합하여, 체언 ‘물’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④ ㉣ : 관형사 ‘험’은 체언 ‘겨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겨울’은 체언 ‘이불’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⑤ ㉤ : 명사 ‘옆’은 체언 ‘반’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옆 반’은 체언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10. <보기>의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탐구 과제]
표준 발음법을 활용하여 다음 밑줄 친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탐구해 보자.

○ 밭에 있는 꽃을 꺾어 화병에 꽂았다.
○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훔에 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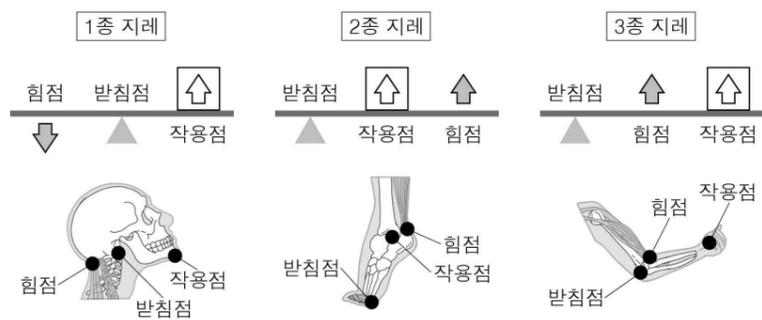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① 밭에 : 제13항에 따라 [바테]로 발음하는군.
- ② 꽃을 : 제13항에 따라 [꼬출]로 발음하는군.
- ③ 꺾어 : 제13항에 따라 [꺼꺼]로 발음하는군.
- ④ 값을 : 제14항에 따라 [갑쓸]로 발음하는군.
- ⑤ 훔에 : 제14항에 따라 [호게]로 발음하는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달리기할 때 필요한 힘은 모두 골격근에서 만들어진다.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하면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이완되고, 팔을 펼 때 삼두근이 수축하면 이두근은 이완된다. 그렇다면 골격근을 통해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골격근은 지레의 작용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 지레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쓰는 막대기이다. 여기서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을 받침점, 힘을 가하는 곳을 힘점, 지레를 통해 힘이 미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한다. 인체에서는 뼈와 뼈가 맞닿아 연결되는 곳인 관절이 받침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이 작용점이 된다. 이러한 지레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위의 그림은 지레의 종류별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지레의 작용을 보여 준다. 1종 지레는 ‘힘점-받침점-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목 근육이 수축하면 목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턱끝이 위로 올라간다. 2종 지레는 ‘받침점-작용점-힘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발가락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발목이 올라간다. 3종 지레는 ‘받침점-힘점-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두근이 수축하면 팔꿈치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손이 위쪽으로 움직인다.

골격근의 수축 작용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근육 원섬유에는 굵기가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일부분씩 겹쳐 배열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밝게 보이는 구간을 명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고 하며, 암대 중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H대라고 한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 주는 선을 Z선이라 하는데,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축한다. 먼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는 마이오신 머리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어 구름다리 구조를 형성한다. 그다음 마이오신 머리들이 고개를 돌리듯 회전하면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고 구름다리 구조는 분해된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으로 골격근이 수축한다. 이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으며,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발생하는 힘이 더 커진다.

한편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는 여러 공급원으

로부터 제공된다. 근육 세포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 저장되어 있는데, 먼저 근육 세포에 저장된 ATP를 사용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는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여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ATP의 생산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체내에 젖산을 발생시키고 근육의 피로가 유발된다.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근육 세포에 다시 저장하고 젖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골격근의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때 숨을 가쁘게 쉬거나, ㉠ 운동을 한 후에 숨을 몰아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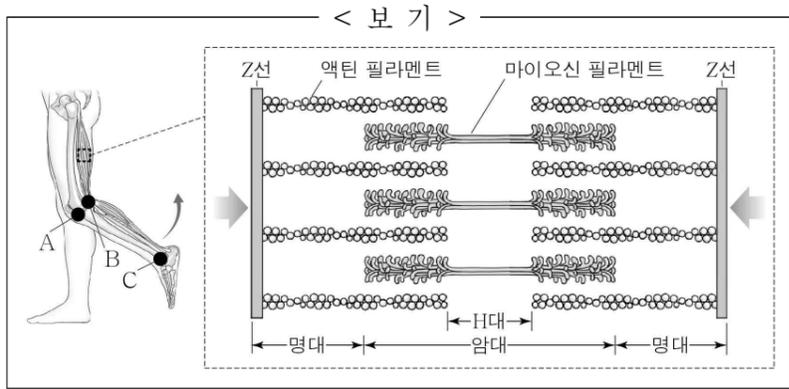
11.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힘줄은 뼈와 골격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 ② 골격근은 이완함으로써 수축하는 힘을 만들어 낸다.
- ③ 팔에 있는 이두근과 삼두근은 쌍을 이루어 작동한다.
- ④ 근육 원섬유를 통해 골격근의 수축 작용이 일어난다.
- ⑤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이 수축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12.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육의 피로가 해소된 후 일어나는 현상이겠군.
- ② 분해할 젖산의 양이 줄어 나타나는 현상이겠군.
- ③ 생산된 ATP의 양이 많아 일어나는 현상이겠군.
- ④ 포도당과 지방산의 생산을 유발하는 현상이겠군.
- ⑤ 크레아틴 인산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현상이겠군.

[13~14] <보기>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윗글과 <보기>를 참고해 13번과 14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13. <보기>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작용하는 지레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 ① '힘점(B)-받침점(C)-작용점(A)'의 구조로 된 1종 지레이다.
- ② '받침점(A)-작용점(B)-힘점(C)'의 구조로 된 2종 지레이다.
- ③ '받침점(B)-작용점(C)-힘점(A)'의 구조로 된 2종 지레이다.
- ④ '받침점(A)-힘점(B)-작용점(C)'의 구조로 된 3종 지레이다.
- ⑤ '받침점(B)-힘점(C)-작용점(A)'의 구조로 된 3종 지레이다.

14. <보기>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일어나는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마이오신 머리가 만든 구름다리 구조가 형성되고 분해되는 일이 반복된다.
- ② 암대의 길이가 줄어들며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 ③ 명대의 길이가 줄어들며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밝게 보이는 구간이 좁아진다.
- ④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며 H대의 길이가 줄어든다.
- ⑤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 주는 Z선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며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진다.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라피티란 공공장소에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을 말한다. 그라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들이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 허가받지 않은 채 재빠르게 낙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그라피티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태그'로 시작되었다. 태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그를 돋보이게 하고자 기존에 있던 태그 위에 덧대어 더 크게 태그를 그리기도 하고, 태그 자체를 복잡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지닌 그림처럼 변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글자는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가 강조되며 그라피티는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태그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려지다 보니 대중들은 태그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했다. 그라피티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술이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비평가들은 단순히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행위에 불과했던 그라피티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이에 그라피티는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텅 비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의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상의 형상을 오려 낸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스텐실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정교한 형상을 갖춘 글자와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할 장소를 염두에 두고 표현할 글자나 그림의 형상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일부 그라피티 예술가들은 그라피티가 그려지는 장소 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분쟁 지역에 평화의 메시지를, 낡은 건물의 벽면에 열악한 도시 환경에 대한 풍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장소 자체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장소 특정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라피티는 그려진 장소에서 떼어 내는 순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거나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저항 정신에 기반한 낙서 행위에 불과했던 그라피티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라피티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는 공공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15. 윗글의 '그라피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장소에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이다.
- ②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다.
- ③ 태그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것을 의미한다.
- ④ 글자가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 ⑤ 예술 장르로 인정받으면서 창작 주체가 도시의 소외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16. ㉠과 같이 평가받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가들이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작품의 기법을 다양화하였기 때문이다.
- ② 사용하는 색채를 제한하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 ③ 대중들이 저항적 메시지에 거부감을 느꼈고 작가들이 소통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예술가들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만 집중하였고 애초의 저항적 성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⑤ 글자가 복잡하고 화려하여 알아보기 어려웠고 개인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언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학예사: 이 사진은 공공장소인 ㉠ 어느 주차장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 작품을 찍은 것입니다. 해당 장소가 주차장임을 알리던 'PARKING'이라는 글자의 'ING' 부분을 작가가 페인트로 덧칠하여 공원이란 의미의 단어인 'PARK'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그네 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글자 'A' 아래에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문자와 그림을 사용하여 현대 사회의 도시 공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① 'ING' 부분을 페인트로 덧칠하여 글자의 형태를 단순화함으로써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 ② 스텐실 기법을 활용하여 '그네 타는 어린 소녀'의 형상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였다.
- ③ 주차장이라는 공공장소에 그려진 공공 예술로 도시에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 ④ 글자와 함께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을 활용하여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였다.
- ⑤ 'PARKING'을 'PARK'로 바꾼 표현 의도를 고려할 때 주차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보면 의미가 퇴색되는 장소 특정성을 지녔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이트는 문화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 낸 체계라고 보았다. 즉, 인간은 타고난 신체적 능력만으로는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생존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를 기술적 체계,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라는 **세 가지 층위**로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발전의 원리를 설명했다.

기술적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자 기반이 된다.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을,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상, 신념, 규범 등을 일컫는다.

화이트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적 체계와 관념적 체계가 잇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물을 끌어 쓰는 기술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역할을 ㉡ 분담하는 사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력을 공동체의 덕목으로 삼게 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농경 문화가 정착했다.

화이트에 따르면 모든 대상은 자연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 반(反) 엔트로피*적 성향을 띤다. 그에 따라 인간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수단을 개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화이트는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E \times T = C$ 라는 공식으로 나타냈다. 이 공식에서 E는 1인당 연간 동력화한 에너지의 양, T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적 체계의 효율성, C는 문화 발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때 문화의 발전은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하여 E와 T를 높임으로써 ㉣ 실현된다. 이는 문화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양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력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엔트로피: 열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양.

(나)

반 퍼슨은 문화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문화의 형성을 신화적 사고, 존재론적 사고, 기능적 사고라는 세 가지 사고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를 강조했다.

반 퍼슨에 따르면 신화적 사고란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여기고, 그 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문화는 비가 내리는 일을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초월적 존재에게 비를 내려 달라고 기원하는 의례이다. 이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져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 도모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사고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 규명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문화는 질병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적 사고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관료제 문화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를 위계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 제고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 퍼슨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사고 유형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중첩되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사고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삶의 방식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즉, 문화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다.

1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문화 발전의 원리를, (나)는 문화를 형성하는 사고 유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가)는 문화가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나)는 문화 발전이 지체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③ (가)는 문화적 체계의 변천 과정을, (나)는 문화가 인간의 사고에 반영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문화 발전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나)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가)는 문화에 대한 특정 견해의 한계를, (나)는 문화를 세분화하여 접근한 시도가 갖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19. (가)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술적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이다.
- ②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이다.
- ③ 관념적 체계는 사회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층위이다.
- ④ 사회적 체계와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층위이다.
- ⑤ 기술적 체계, 사회적 체계, 관념적 체계는 모두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20. (가)의 ㉠을 바탕으로 (나)의 [기우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를 식수로 활용하여 에너지를 동력화한 것이군.
- ② 타고난 신체적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가뭄이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소망이 반영된 것이군.
- ③ 관념적 체계로 작동하는 의례를 통해 비를 동력화하는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시키려 한 것이군.
- ④ 초월적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체계를 통해 식수를 획득하여 삶의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이군.
- 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초월적 존재로부터 획득하여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활용하려는 것이군.

21. (나)의 ㉡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화는 세 가지 사고 유형이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완결된 체계이다.
- ② 문화는 자연법칙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탐구함으로써 세계의 고유한 특성을 재해석할 수 있다.
- ③ 문화는 과거의 정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 맞게 역동적으로 변화될 때 가치가 있다.
- ④ 문화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 형성된 특수성을 지니므로 각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 ⑤ 문화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체계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22. (가)의 '화이트[A]'와 (나)의 '반 퍼슨[B]'의 관점에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분수의 연혁

- 1751년 : ○○산과 ○○시의 고저 차를 측정한 결과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분수를 건설함.
- 1943년 : 대규모 도시 개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이 부족해지자 ○○시는 분수에 물 공급을 중단함.
- 1969년 : ○○시의 전력 보급에 따라 전기를 동력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분수의 규모가 커지고 도시 경관이 개선됨.
- 1979년 : 분수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시는 시청에 분수 시설 관리과를 신설하여 분수 주변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
- 1992년 : 분수에 조각된 신에게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지면 신이 그 소원을 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자 ○○시는 이 분수를 대표 관광지로 지정함.

- ① [A]: 대규모 도시 개발로 ○○시가 분수에 물 공급을 중단한 것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분수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 체계가 변화한 것이다.
- ② [A]: 전력을 이용하여 분수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 경관이 개선된 것은, 동력화한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 발전의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 ③ [B]: 고저 차를 측정하여 일정한 수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분수를 건설한 것은, 세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려는 존재론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 ④ [B]: ○○시가 분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청에 분수 시설 관리과를 설치한 것은, 기능적 사고에 따라 조직의 기능을 개편한 것이다.
- ⑤ [B]: 사람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분수에 조각된 신에게 동전을 던지는 것은, 신화적 사고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23. 문맥상 ㉠ ~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도맡는
- ② ㉡ : 이루어진다
- ③ ㉢ : 피하려는
- ④ ㉣ : 밝히려는
- ⑤ ㉤ : 높일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교내 신문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재화와 서비스의 편익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에 따라 경제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매우 많거나 급히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은 종종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최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존재로 보기도 한다.

제한된 합리성은 ‘휴리스틱’으로 인해 나타난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직감에 따라 빠르게 의사 결정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인간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기억, 평소에 가지고 있는 호불호의 감정,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단편적인 정보 등에 따라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은 커다란 인지적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인지적 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지적 편향이란 경험에 의해 비논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성향을 말한다. 일례로 소비 기한이 지난 재료로 A 음식을 만든 어느 식당이 영업 정지를 당한 뉴스를 접한 후, 다른 식당에서도 A 음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특정 경험 때문에 음식 선택의 폭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다.

(나)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말한다. 디지털 경제에서 주요 생산 요소인 정보는 접근이 쉽고, 처리와 전달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는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 양상이 나타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기업은 소비자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빅 데이터 분석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업은 소비자의 구매 이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활동 내역 등과 같은 정보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의 인적 사항부터 위치 정보, 습관 및 취미에 관한 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개인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여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행위에 악용되는 경우 소비자가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

[표제] ‘경험’이 곧 상품이 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부제]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 슬기롭게 소비해야...

[전문]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맞춤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본문] 소비자 개개인의 경험에 맞춘 맞춤형 상품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기업은 AI, 빅 데이터 분석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의 구매 이력, 온라인 활동 내역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한다. 이처럼 기업은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우호적인 감정을 일으켜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유도한다.

소비자는 커다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개인의 경험에 맞춰 제공된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접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인식을 연구한 □□대학교 황○○ 교수는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 이력을 고려해 추천된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하면서 제품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이 감정은 제품에 대한 재구매 의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 제품이 정말로 자신에게 좋은 제품인지, 다른 상품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맞춤형 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 우선, 맞춤형 상품에 활용되는 개인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수집되거나 유출되지 않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 맞춤형 상품 소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가)와 관련하여

- 경제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전통적인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①
- 제한된 합리성이 경험과 직감에 따른 의사 결정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②
-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③

(나)와 관련하여

- 디지털 경제에서 생산 요소로서 정보가 지닌 특성은 무엇일까? ④
- 기업이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제한된 합리성의 개념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상반된 평가를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휴리스틱에 따른 의사 결정의 사례에 주목하고, 기업이 판매율을 고려하여 친환경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나)에서 정보가 경제 활동에서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소비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디지털 경제의 개념에 주목하고, 디지털 상품을 소비할 때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등으로 구성된다. 표제는 기사의 제목으로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부제는 표제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전문은 본문에서 제시할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기사의 핵심을 전달하고, 본문은 기사의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다. 이때 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① 표제에서 경험에 기반한 상품이 주목받고 있음을 강조하여 표현한다.
- ② 부제에서 표제에 언급하는 상품이 맞춤형 상품임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③ 전문에서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하여 전달한다.
- ④ 본문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이 주는 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 ⑤ 본문에서 맞춤형 상품 소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기업은 소비자의 과거 구매 경험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기업으로부터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어 비슷한 제품만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성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하여 소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소비자는 휴리스틱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리적 선택을 통해 소비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소비자가 자신이 관심 있을 만한 정보만 제공받아 맞춤형 상품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행위가 인지적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③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인간은 특정 경험 때문에 비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기업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하므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현대 사회에서 정보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기업은 맞춤형 소비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28~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써 학급 문집에 실으려 함.

[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휴대폰 사용 시간이 부쩍 늘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들을 확인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을 계속 넘기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곤 했다.

휴대폰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화려해 보이는 친구들의 일상과 달리 평범한 내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져 우울했고, 휴대폰을 보느라 할 일을 미루며 스스로에게 집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다. 휴대폰 화면의 불빛은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 내고 싶어진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막상 휴대폰 전원을 끄니 심심해졌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며 책상 서랍을 열다가, 어릴 적부터 간직해 온 그림 공책을 발견했다.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주변 풍경을 공책에 스케치하며 즐거워하곤 했다. 밤마다 껴안고 잔 곰 인형, 요리하는 엄마의 뒷모습, 나만 보면 야옹 울던 집 앞 고양이까지, 일상의 소중한 것들을 공책에 옮겨 그렸었다. 공책 한 장 한 장에 담긴 오래된 추억들을 떠올리자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다)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연하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
 저물녘 바람 불어 물결을 놀래고
 햇빛이 금색 되어 노을이 뻗치니
 천상의 신선들이 묘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하며 온갖 곡식 부엌에서 끓이는 듯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조수의 성난 기운 어느 곳이 잠잠할까
 강가의 일곱 불상은 어느나 모르느냐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그지없다
 어린 아이 예닐곱 기별 없이 찾아오네
 나그네의 정회를 떨쳐 내면 어떠한가
 한때의 **태평성세**를 대강만 물으니
 지난 일 아득하여 **자취**만 남았도다
 나중에 태어나 바람결에 술잔 기울이니
 못다 푼 **시름**이 갈수록 새롭도다
 정사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 시행되니
 백성들이 편안하여 난리를 잊었도다
 임금이 환궁하여 중흥을 여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겠도다
 천자 현명하여 우리를 살피 양호*를 보내시니
 소신을 중용하여 영위사*로 가라 하여
 나랏일을 걱정하여 한시바빠 궁궐을 떠나오니
 봄옷을 갖 만든 삼월 초하루였네
 꽃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뽕과 삼도 거두고 울곡식도 성숙하여
 다섯 달 넘었으니 ㉠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이라 놀랐네
 행장을 만져 보고 **돌아갈 날** 헤아리니
 몇 달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멀까 하노라

[A]

[B]

- 이현, 「백상루별곡」 -

* 수군 백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중국 수나라 병사들을 청천강에서 몰살시킨 사건을 가리킴.
 * 양호: 정유년(1597)에 왜군이 다시 침략하자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수.
 * 영위사: 조선 시대에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여 대접하던 임시 벼슬.

31.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반어법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연쇄법을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경어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죽음의 허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보여 주는 존재이다.
- ② ㉡은 ㉠과 달리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 ③ ㉠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쓸쓸함을, ㉡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놀라움을 자아내는 존재이다.
- ④ ㉠은 벗어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은 잊고 있었던 본연의 자아를 깨닫게 하는 존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33. 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감나무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 ② ㉡: 신체 변화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일어났음을 부각한다.
- ③ ㉢: 땅을 디디며 순간적으로 느끼게 된 안도감을 강조한다.
- ④ ㉣: 감나무를 한동안 보며 사색에 잠기는 상황을 강조한다.
- ⑤ ㉤: 저녁노을 속에 있는 감나무의 선명한 인상을 부각한다.

3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B]는 관찰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B]는 사건의 경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내적 성찰이 진행되는 과정을, [B]는 사회적 상황이 변화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B]는 현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점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관찰의 범위를 좁히며, [B]는 관찰한 자연 경관을 열거하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5.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화자는 '매년' '고향집 감'을 따며, (다)에서 화자는 '뽕과 삼'을 거두는 것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군.
- ② (나)에서 '우거진 가지들'은 개인적 기억을, (다)에서 '조수의 성난 기운'은 역사적 사건을 환기하는 시각적 이미지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군.
- ③ (나)에서 화자는 '허리 흰' 아버지와 '구부정한' 자신을 대응시켜 아버지를, (다)에서 화자는 변함없는 '산수'와 유한한 '사람'을 대조하여 자연을 예찬하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늪은 거미'처럼 더딘 존재로, (다)에서 화자는 '태평성세'의 '자취'만 남은 현실에서 '시름'하는 존재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군.
- ⑤ (나)에서 '어쩔 수 없다'는 화자의 말은 나이 든 모습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심리를, (다)에서 '돌아갈 날 헤아리'는 화자의 행동은 궁궐로의 복귀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군.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때 남촌 땅에서 사는 이업이란 사람의 아들 형제가 같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함을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한 후 돌아와 부인 왕 씨를 대하여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남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나, 우리는 어찌하여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 밤낮으로 걱정을 하는고?”

하며 슬퍼할 때 시녀 춘앵이 곁에 있다가 웃으며 말하기를,

“우리 세 소저는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하거늘, 생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하였더니 끝내 듣지 아니함은 틀림없이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매 차라리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리라.”

하고 취중에 노기를 견잡지 못하여 칼을 들고 후원으로 들어가려 하니 왕 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어린이의 상스러운 ㉠ 놀이를 대사(大事)로 삼아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차마 할 바이리오? 내일 친척을 모아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여이다.”

하며 여러 가지 말로 애걸하니 생이 잠깐 노를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게 분부하여,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때 세 소저가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이 기미를 알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도로 침소에 돌아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대인의 성품이 급하시거늘 우리가 두 번 죄를 범하였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실지라.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산란하고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요.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어찌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켜 그저 늙으리오? 잠깐 부모 슬하를 떠나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의환향하여 부모께 뵈오면 기뻐하실까 하노라.”

벽주가 말하기를,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나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한즉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리니 언니는 깊이 생각하소서.”

[A]

자주가 묵연부답이니 명주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되, ‘대사를 경영함에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나니,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부모님께 허물을 끼침이 또한 불효이라.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십 년 기한하면 정한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는 유예치 말고 한마디로 결단하소서.”

자주가 말하기를,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직을 어찌하리오?”

명주가 말하기를,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곳을 고하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명백히 하사이다.”

하고 세 사람이 한 통 편지를 써서 동산 정자에 걸고 남복을 바꿔 입은 후 얼마간의 노자를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넘어

달아났다.

[중략 부분 줄거리]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최완 삼 형제를 만나 의형제를 맺고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혔다. 이후 여섯 사람은 전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세 자매는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상이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문관과 무관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태후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사 옥궁비빈과 대신 명부를 불러서 즐겼다.

상이 연꽃을 구경하실 때 문득 최완 등과 자주 등에게 명령하시기를,

“짐이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바를 좋게 여겼었다.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 반드시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지금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짐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시니 최완 등은 술이 반쯤 취하여 흥이 높았기에 기쁘게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자 하되, 자주 등은 망연하고 황공하여 땅에 엎드렸다. 상이 연하여 재촉하시니 이에 명주가 엎드려 아뢰기를,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서 마땅히 요임금과 순임금의 다스림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며 공훈히 여기시고 나랏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어찌 ㉡ 놀이를 일삼으사 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신은 그욕이 나서지 않겠나이다.”

하며 말투가 씩씩하였다.

상이 아름답게 여기시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 자매의 본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이에 엄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신하가 되어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여 짐에게 피해를 줌이 가히 옳다 하랴?”

자주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충성스런 신하의 간함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니 장차 천하를 어찌 다스리려 하시나이까?”

하며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슬프게 울었다.

상이 거짓으로 화난 체하시며 무사로 하여금 세 사람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시니,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 십여 인이 달려들어 세 사람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이르러서는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허둥지둥하다가 빨리 사모와 조복을 벗고 엎드려 죄를 청하니 상이 거짓으로 놀라시며 물으시되,

“경의 죄를 청하는 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아뢰라.”

세 사람이 울면서 아뢰기를,

“저희들이 천지를 속여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 있사오니, 지금에 와서 어찌 끝까지 속이리이까?”

하고 전후사연을 낱낱이 아뢰었다.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웃으며 말하기를,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으니 진실로 기이한 일이다. 짐이 저번에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작위를 줄 때 작위명을 다르게 한 것이요, 오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대사를 행하고자 함이니,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하나 어찌 나를 속이리오?”

하시고 시중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즉시 부르라고 명하였다.

세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궁녀를 따라서 장춘전에 이르러 사배하니 태후와 황후가 용안을 보신즉 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민첩한 기질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황후가 기쁘게 자리를 내어 주시고 칭찬하기를,
 “경이 **규중의 여자**로 만군 중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나라에 공이 크니** 그옥이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시니 세 사람이 엎드려 은혜를 감사하였다.

- 작자 미상, 「옥주호연」 -

3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생은 딸을 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 ② 춘앵은 자주 자매의 무예 실력을 칭찬했다.
- ③ 자주 자매는 세쌍둥이로 같은 날 태어났다.
- ④ 최완과 자주는 모두 절강 사람으로 알려졌다.
- ⑤ 태후는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못했다.

37. [A]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주는 천명을 근거로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② 벽주는 실패 시의 위험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명주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주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 ④ 자주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계획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⑤ 명주는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거취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38. ㉠, ㉡에 담긴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행위의 의미를 축소하여, ㉡은 행위의 부당함을 비판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 한 것이다.
- ② ㉠은 행위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은 행위의 경위를 해명하여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 한 것이다.
- ③ ㉠은 행위의 동기를 은폐하여, ㉡은 행위의 절차를 문제 삼아 상대방과의 합의를 도출하려 한 것이다.
- ④ ㉠, ㉡은 모두 행위가 단순한 유희임을 강조하여 상대방에게 동참을 요청하려 한 것이다.
- ⑤ ㉠, ㉡은 모두 행위가 미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여 상대방의 화를 돌우려 한 것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옥주호연」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억압적인 성별 규범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때 남장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 한편 남장은 국가적 질서 아래서 징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약점이기에 정체 탄로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한다. 그러나 여성 주인공들은 정체 가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성취를 인정받게 된다.

- ① 유생이 무예 수련을 하는 딸들을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라고 규정하는 데에서, 가부장적인 성별 규범에 의한 억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세 자매가 ‘공명을 이룬 후 금의환향’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데에서,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여성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임금이 잔치에서 ‘세 사람의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고 명령한 데에서, 남장이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정체 탄로의 위험을 동반함을 알 수 있군.
- ④ 임금이 세 자매가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를 스스로 밝히도록 유도하는 데에서, 자신을 속인 세 자매를 징벌하여 국가적 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단죄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⑤ 황후가 ‘규중의 여자’로 ‘나라에 공이 크’다고 치하하는 데에서, 남장 시기의 공적이 여성의 성취로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 시기 칠산리에 사는 간난어미는 빨갱이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12명의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핀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 희생했던 간난어미의 무덤을 칠산리를 떠난 후에도 찾는다. 간난어미의 무덤을 옮긴다는 공고가 나자 자식들은 면사무소로 모이고, 형사들은 자신들이 쫓는 사상범이 무덤 이장과 관련하여 칠산리로 올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칠산리로 향한다.

면장: 지금 칠산리엔 양순한 주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빨갱이* 소굴이었다면서 칠산리 출신이라면 혼삿길 막히고, 출셋길이 막히고, 살길마저 막힙니다. 실제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원 조회에 걸려 안 되거든요. 사실은 난리를 일으킨 건 칠산리 사람들이 아닌데, 온갖 피해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셈이죠.

늙은 형사: 칠산리를 좋게만 말씀하시는군요?

면장: 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젊은 형사: 면장님,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놈은 칠산리 출신입니다.

늙은 형사: 지금 면사무소에 와 있는 자들도 그렇죠.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모두 위험하다구 봐야 합니다.

면장: 칠산리 주민들은 그런 빨갱이의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만 입고 있기 때문이죠. 칠산리 골짜기엔 그들 어머니의 무덤이 있어서 찾아오곤 하는데, 주민들은 그들이 오는 것마저 꺼려 해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이번엔 자동차 길을 내는 기회에 그 무덤을 옮겨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중략)

면장: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유감스럽지만..... 칠산리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칠 겁니다.

장녀: (더욱 강경한 어조로) 그렇게 할 테면 하라죠! 그러나 면장님, 이걸 알아 두세요. 그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오지 못한 사람들, 오고 싶어도 막내처럼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반대하는 거라구요!

차녀: ㉠ (회의적인 태도로 고개를 흔들다) 난 여기에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니를 옮겨 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

장녀: 어머니를 옮길 곳이 어디야? 그리고 자식들인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구?

차녀: 우리 각자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

장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칠산리뿐이야!

차남: ㉡ (장녀에게 동조하며) 옳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지나지 않아. 사람은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해. 우리에게겐 그곳이 칠산리구, 어머니 무덤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지!

삼남: 칠산리라면 지긋지긋해. 그곳은 우릴 반겨 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리를 아예 잊어버리는 것두 나쁜 건 아니라구. 오히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차녀: 그래, 오늘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칠산리를 잊은 거야. 그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아냐. 칠산리를 잊어버리려구, 그들은 일부러 오지 않았어.

장녀: (꾸짖는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은 이제 어머니의 자식들이 아냐!

삼남: ㉢ (대항하듯이) 왜? 나도 어머니의 자식이야. 칠산리를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만이 자식들이 할 일이라구 생각하지 말어.

장녀: (분노해서 삼남의 뺨을 친다) 누구야? 또 누구지? 우리들 중에서 칠산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정말 그냥 안 둘 테야!

차녀: 난 이런 분위기 싫어!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자식도 아니라니..... 그럼 누가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겠어?

삼녀: ㉣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흐느낀다) 싸우지 마..... 무서워.....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건 무섭다니깐.....

장남: (삼녀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무서워할 것 없어. 우리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오늘 여기에 온 사람, 무슨 이유에서든지 여기에 오지 않은 사람, 그 모두가 어머니에겐 똑같은 자식이라구. ㉤ (자식들에게) 다들 마음을 진정하구 생각해 봐. 아까 우리 이런 말을 했었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칠산리와 똑같구, 우리가 겪는 고통도 다를 게 없더라구..... 우리가 모두 어머니의 자식들이,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야. 우리가 어머니를 동쪽으로 옮겨 드리면 그곳이 칠산리, 서쪽으로 옮겨 모시면 그곳이 칠산리, 남쪽으로 옮겨도 그곳이 칠산리라구.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화장해서, 각자 나눠 갖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 그곳이 모두 칠산리가 되는 것이지. (흐느끼는 삼녀를 데리고 무대 밖으로 퇴장하며) 우리는 칠산리로 가겠어. 어머니를 모셔 갈 사람들은 다 함께 칠산리로 가자구.

자식들, 하나둘씩 장남의 뒤를 따라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무대는 면장만이 남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린다.

면장: 군청입니까? 여기는 월평면 면사무소입니다. 군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연고자들이 방금 칠산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자기들 손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겠습니다. 네..... 네..... 저도 뒤따라 칠산리에 갈 겁니다. 아무 말썽 없이, 그들의 어머니를 옮겨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바라본다) 눈이 점점 더 쏟아지는군. 어머니가 세상을 뒤엎듯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는군.

- 이강백, 「칠산리」 -

* 빨갱이: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4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젊은 형사는 칠산리 주민들이 양순하다는 면장의 말에 동의했다.
- ② 자식들은 이장 공고 전에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칠산리에 오지 않았다.
- ③ 칠산리 주민들은 칠산리에 자동차 길이 생기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 ④ 장녀는 면장에게 무덤을 이장하기 어려운 사정을 밝히며 연기를 요청했다.
- ⑤ 면장은 군수에게 자식들이 어머니의 무덤 이장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41. 문맥을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차녀는 장녀와 달리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는 데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 차남은 장녀와 마찬가지로 칠산리를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 삼남은 장녀와 달리 칠산리를 잊어버리는 것에 반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삼녀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장남은 다투고 있는 형제자매를 향해 진정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칠산리」는 어머니의 포용적 사랑을 통해 6.25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칠산리라는 공간은 이념 갈등의 아픔을 간직한 곳으로, 전쟁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념 갈등으로 인해 칠산리 주민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고, 주민들은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동시에 칠산리는 이념을 초월한 간난어미의 희생과 사랑이 실현된 곳으로, 간난어미의 사랑은 칠산리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 ① ‘칠산리 출신이라면 혼삿길이 막히’는 것은 칠산리라는 공간이 주민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 ‘빨갱이의 자식들이란, 모두 위험하다’고 보는 늙은 형사의 인식은 전쟁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념 갈등을 드러내는군.
- ③ ‘그 무덤을 옮겨 달라’는 요구는 자식들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면장과 주민들 사이의 대립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칠산리 주민들의 의지를 담고 있군.
- ④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세상 어디든지 그곳이 칠산리’라는 장남의 인식은 간난어미의 사랑이 칠산리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군.
- ⑤ ‘어머니가 세상을 뒤덮듯이…… 세상이 온통 새하얗게 되’도록 내리는 눈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포용적 사랑을 상징하는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야기를 마친 사내는 델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소들소들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는 나에게도 복사한 델러웨이의 ‘미지의 창’을 한 장 주었다.

“프린터로 카피한 것이라 해도 델러웨이의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사내는 휘파람을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 낸다는 그의 컴퓨터도 ‘미지의 창’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확대를 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것은 먹장구름 같은 회색의 괴물에 불과했다.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백만 달러어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시시껄렁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 참, 그리고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말도 아낀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의 하나일 거예요. ‘창은 진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각의 벽 속에 갇혀 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 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뷰파인더를 통해서 본다.’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사내는 다시 허공에 대고 팔을 가볍게 흔든 뒤 모니터에 집중했다.

내가 사내에게서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상급보다도 신선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사내가 이사 온 후로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멀스멀 오염되듯 인화되는 인화지를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들뿐이었다. 델러웨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사각의 벽 속에 있는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였다. 내가 찍으려는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았다. 진실이나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던 그 순간뿐이었다.

나는 자극을 위해서라도 델러웨이의 사진을 해독하고 싶었다.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델러웨이 기법을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등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가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사진 기자재를 기증하려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가 델러웨이의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만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에게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았지요. 그러면 혹시 델러웨이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날까 해서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뒤로 저도 델러웨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과 수강생 모두 델러웨이 증후군에 빠졌지요. 델러웨이 증후군이라 이름 붙일 만하지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이겠지요?”

그러면서 원장은 커피로 목을 축였다. 내가 혹시 델러웨이의 사진을 구했냐고 물었지만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겠다는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러웨이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구라파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설만 난무하니…… 델러웨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서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건지, 뭘지…… 원…… 델러웨이 증후군이 대단하긴 대단

합니다. 델러웨이 강좌를 개설한 후 실기나 실습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보다 델러웨이에 관한 토론 수업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광고 보셨죠? 델러웨이 기법으로 촬영한…….”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으로 질문했던 수강생이 누구였는지 물었지만 원장은 이름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나는 대신에 16기생들의 사진집이 있으면 한 권 줄 수 없냐고 물었고, 원장은 흔쾌히 한 권을 캐비닛에서 꺼내 주었다. 나는 사진집을 받으면서 원장에게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델러웨이 사진을 흉내 내 찍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원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델러웨이가 국내에 알려진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리고 만든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학생들인데 모두가 뻔하게 아는 델러웨이 기법을 따라 해서 뭐하겠어요? 광고나 영화면 몰라도…….”

그날 나는 이 층 창이 보이는 어둠 속에 앉아서 사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져온 사진집을 펼쳤다. 책 안에 숨겨진 지폐를 찾는 것처럼 빠른 동작으로 책장을 넘기던 나는 어느 한 사진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사내의 이름이 또 박 박혀 있었고 또한 사내의 증명사진이 아래 칸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내의 증명사진 위에는 사내의 작품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델러웨이 작품으로 알려진 사진이었다. 한 사내가 평범하게 웃고 있는 인물 사진이었고, 사진 속 남자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면 뭔가가 분명 비치고 있었다.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게 제 직업이죠.”

순간 사내가 이사 온 날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사내가 집들이 때 델러웨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풀 죽은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야 알 것 같았다.

사내의 그림자가 오가는 이 층의 창이 마치 사내가 말하는 컴퓨터 같았다. 없는 사실을 실제 만들어 낸다는 커다란 컴퓨터.

- 박성원, 「델러웨이의 창」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이 찾은 단서를 통해 특정 인물의 정체를 추측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병치시켜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과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다른 인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전달하고 있다.

4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는 뷰파인더라는 창을 통해 세상의 이면을 파헤치는 자신의 직업을 늘 자랑스러워했다.
- ② ‘나’는 델러웨이의 사진을 접한 후 자신의 사진은 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했다.
- ③ ‘나’는 사람들이 가진 델러웨이에 대한 정보가 사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동일한 것을 의아해했다.
- ④ 원장은 수강생이 질문을 했을 때 델러웨이를 몰랐지만 아는 체하면서 델러웨이에 대한 생각을 되물었다.
- ⑤ 원장은 델러웨이 사진 기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델러웨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워 답답해했다.

45. <보기>는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습 활동]
 다음은 현대 사회에 대한 한 사회학자의 견해가 담긴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생각해 보자.

현대 사회는 실재 같은 가짜가 범람하는 시대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뮬라시옹’과 ‘시뮬라크르’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뮬라시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실재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이고, 그 결과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은 시뮬라크르가 만들어진다. 현대 사회의 대중은 시뮬라크르를 오히려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 ① 사내라는 시뮬라크르가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 열풍을 유발하는 현상을 보여 줌으로써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현대 사회를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② 매체를 활용한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의 실재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진실과 거짓을 분리하려는 대중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③ 사내의 사진을 소비하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사내라는 시뮬라크르의 위상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거짓이 독자적 생명력을 지니는 현실을 부각하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④ 델러웨이 사진이라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 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사진의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 작품이겠군.
- ⑤ 델러웨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시뮬라시옹을 통해 델러웨이라는 시뮬라크르가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거짓이 만연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부각하고자 한 작품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